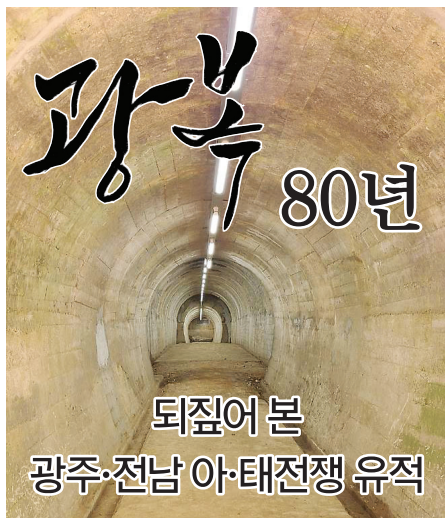


동아시아 뱃길 중심 ‘전략 요충지’…15개 방어시설 깊은 상흔



〈8〉 거문도

제주도를 제외하고 우리나라 최남단에 있는 여수시 삼산면 거문도는 국제 정세에 휘말려 수차례 외세 ‘침탈’을 당한 아픔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1854년 러시아 함대가 기항한 것을 시작으로 1885년에는 영국군이 2년에 걸쳐 거문도를 무단 점령하기도 했다. 일제 강점기 이후에는 일본이 거문도를 점거하고 러·일 전쟁의 전략적 요충지이자 어업 기지로 삼았다.

거문도는 동도(東島)·서도(西島)·고도(古島) 등 작은 섬들이 모여 있는 형태로 총면적은 12㎢에 불과한데다 여수시로부터 남쪽으로 114여㎞ 떨어져 있을 만큼 외딴 곳이지만, 영국, 일본 등은 일찍부터 이 곳을 지정학적 군사 요충지로 눈여겨봤다. 여수시와 제주도 사이에 있는데다 동해와 서해를 잇는 항로 중심에 있는 등 ‘중간 지점’에 있는 섬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본은 아·태전쟁보다 한참 이른 1904년부터 사세보에서 거문도까지 이어지는 해저케이블을 설치해 군사 통신 시설을 만들고 거문도를 전해방비대의 전초기지로 삼았다.

일본의 거문도 침탈이 심해진 것은 1941년 12월 아·태전쟁이 발발한 직후다.

거문도는 진해 경비부 사령관의 지휘 아래 들어가고 만 내에는 구축함 등 전함의 출입이 더욱 빈번해져 거문도 해안에는 초계정들이 상주했다. 거문도 인근 해안을 방어하기 위해 진해 경비부 소속의 방비부대가 편성, 배치됐고 1944년 말부터는 일본과 중국을 오가는 수송선단을 호위하기 위한 해방함들도 배치돼 주변의 주정기지를 오가며 호송임무를 수행했다.

이 무렵 일본은 거문도 곳곳에 군사 시설을 마구 지어대기 시작했다. 1944년 12월 방위총사령부에서 제주도, 목포, 여수를 포함한 남해연안의 방어시설 구축을 지시하면서다. 동도 해안가와 산중턱에 아홉 곳, 음달산 두 곳 불탄봉 관측시설로 추정되는 세 곳, 서도 토치가 한 곳 등이 현재에도 남아있다.

거문도의 시설물은 자연암반이나 토갱으로 구축된 다른 지역의 시설물과 달리 콘크리트 입구를 만든 것이 특징이다. 전쟁 중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시간과 물자가 많이 요구되는 콘크리트 타설까지 해 견고히 구축했다는 점은, 일본이 이곳 군사시설에 상당한 공을 들였음을 암시한다.

서도 불탄봉에 있는 기지 시설이 대표적이다.

시설물 내부는 모두 콘크리트 타설로 구축돼 견고하고 입구 두께만 해도 35cm에 이르며 가로, 세로 50cm의 굴뚝이 2개나 만들어져 있다.